

# “젊은 시청자 잡아라”... 웹툰 드라마 열풍

‘죽어도 좋아’ ‘계룡선녀전’  
‘일단 뜨겁게 청소...’ ‘은주의 방’  
현재 방송 드라마 네 편  
소재 참신 ... 각색은 과제로

최근 젊은 시청자들을 붙잡기 위해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붐을 터지듯 쏟아진다.

KBS 2TV 수목극 ‘죽어도 좋아’, tvN 월화극 ‘계룡선녀전’, JTBC 월화극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올브 ‘은주의 방’ 등 현재 방송 중인 웹툰 원작 드라마만 해도 네 편이 넘는다.

이밖에도 올해 JTBC ‘내 아이는 강남미인’,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KBS 2TV ‘당신의 하우스헬퍼’ 등 웹툰 원작 드라마들이 끊임없이 시도됐다.

현실과 판타지를 넘나드는 웹툰은 소재가 독특하고 트렌디하다. 또 탄탄한 줄거리가 있는 웹툰의 경우는 이미 검증돼 왔기 때문에 드라마화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웹툰 특성상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아 현실의 화면으로 옮겨놓는 작업이 쉽지는 않다.

만화적 상상력을 화면으로 구현하려다 보니 유치하거나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느낌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웹툰과 드라마가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하는 원작 팬들과 전개의 현실성을 요구하는 드라마 팬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도 어렵다.

스토리, 화면, 인물들까지 2차원인 웹툰을 3차원인 화면에 구현해야 하니 판권 구매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보다 더 큰 노력과 비용이 든다.

원작 인물과 드라마 주연 배우들의 ‘싱크로율’부터 컴퓨터그래픽(CG) 수준까지, 노력에도 흑평이 쏟아지기 쉽다.

‘악덕 상사 갱생 프로젝트’를 표방한 ‘죽어도 좋아’는 이렇다 대리(백진희 분)가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백진상 팀장(강지



tvN 월화극 ‘계룡선녀전’



KBS 2TV 수목극 ‘죽어도 좋아’

환)을 구해내는 내용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내용을 담은 오피스극이다.

‘죽어도 좋아’는 로맨스가 주된 내용인 원작과는 달리 본격 오피스극으로 방향을 정해 악덕 상사의 위경망에 대한 인격 모독, 부당한 인사იდ동 등 사내 부조리를 현실적으로 다뤘다. 타임프러스는 원작의 핵심적인 판타지 요소를 살렸다.

드라마 관계자는 “시청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만화적 설정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비유를 로맨스보다는 상사 경생 프로젝트에 썼다”며 “상사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웹툰의 에피소드만 가지고는 드라마를 만들 수 없다”며 “그러나 원작과 하려는 이야기는 같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원작 그대로 같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지는 항상 중요한 과제”고 드라마화의 어려움도

전했다. tvN 월화극 ‘계룡선녀전’은 웹툰을 그대로 화면으로 옮겨가려는 과정에서 웹툰 팬과 드라마 시청자를 모두 다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도 있다.

‘선녀와 나무꾼’을 각색한 699년 동안 남편이 환생하기만을 기다린 선녀의 이야기로, 컴퓨터 그래픽(CG) 사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극중 점순이(강미나)가 변한 고양이, 선녀가 날아오르는 CG 장면 등이 ‘실망스럽다’는 시청자 평가가 있었다. 원작 팬들도 ‘일부 배우의 연기가 원작을 앞차워줬다’고 말했다. ‘너무 과장됐었다’ 등 흑평을 쏟아냈다.

올브 ‘은주의 방’은 에피소드로 끊어지는 웹툰의 특성을 비교적 잘 살렸다.

집을 정리하고 꾸미며 성장해가는 심은주(류혜영)의 소소한 일상을 에피소드별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여준다. 그 과정에

서 1인 가구에 전해주는 인테리어 ‘꿀팁’은 덤이다.

웹툰의 드라마화가 끊임없이 시도되는 이유는 TV로부터 멀어지는 젊은 시청자를 붙잡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웹툰의 소재는 다양하고 젊은층의 관심을 끌만큼 트렌디하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미 만들어진 소재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만드는 부담도 없다.

방송 관계자는 “드라마 한 편을 만들어나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웹툰을 원작으로 하면 소재 개발이 쉽다”며 “게다가 좋고 참신한 소재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웹툰에는 사실적 묘사보다는 판타지적 묘사가 많고 디테일한 부분은 부족해서 드라마화를 할 때는 각색하거나 새롭게 넣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보헤미안 랩소디’ 600만 돌파... 음악영화 1위

### 10일 MBC 스페셜 ‘퀸’ 특집

‘보헤미안 랩소디’가 600만 고지를 돌파하며 역대 음악영화 흥행 1위에 올랐다. 배급사 이십세기포क्स코리아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 기준 ‘보헤미안 랩소디’ 누적 관객 수가 600만명을 넘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로써 이 영화는 592만명을 동원한 ‘레미제라블’ (2012년)을 제치고 역대 음악영화 가운데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작품이 됐다.

영화는 지난달 28일 개봉한 ‘국가부도의 날’에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내줬으나 실시간 예매율에서는 여전히 1

위를 달리며,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보는 ‘N차 관람’이 이어지는 등 열성적인 팬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다.

운성은 영화평론가는 “이 영화 팬들은 N차 관람은 물론, 노래를 따라부르는 ‘싱어롱’ 상영, 스크린X·사운드 특화관 등 특별관 순례를 이어간다”며 “영화를 본다는 행위의 새로운 형태를 연 작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헤미안 랩소디’가 큰 반향을 일으키자 MBC가 이날 밤 영화하이라이트 장면인 1985년 ‘라이브 에이드’ 공연 상황을 33년 만에 재현시켰고, 오는 10일 ‘MBC 스페셜’에서 ‘퀸’ 특집 방송인 ‘내 심장을 할퀸(QUEEN)’을 방영키로 했다. /연합뉴스

## 로또 추첨 생방송 이번주부터 MBC TV로 보세요

로또 추첨 생방송 채널이 SBS TV에서 MBC TV로 바뀐다.

MBC TV는 오는 8일 오후 8시 45분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를 방송한다고 3일 밝혔다.

MBC TV는 로또 추첨 프로그램을 가져오면서 복권기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휴먼 다큐멘터리로 만나는 ‘행복한 세상’ 코너를 신설했다. 진행은 서경석과 임현주 아나운서가 맡아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시청자와 만난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여영차 바다야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차탈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55 중계방송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0 좋은 아침
[10]	00 중계방송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40 지구촌 뉴스		00 중계방송 국회 인사청문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11]		00 땀보걸즈(재)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재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기분 좋은 날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습설계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2018 삼성화재 웰드바둑 마스터스 결승 2국 (한국전 9단: 7대 9단)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2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프리파라 3 55 뽀뽀모도야 놀자	00 뉴스브리핑
[3]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판다랑 55 5 MBC 뉴스	00 2018 SBS 물 환경대상
[4]	00 사사건건	00 삼청동 외할머니(재)	15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윤명과 분노(재)
[6]	00 6시 내고향	50 끝까지 사랑	5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7]	00 KBS 뉴스 7 35 전라도 매력청	30 글로벌24 55 1대 100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8]	25 비켜라 운명아			
[9]	00 KBS 뉴스 9	00 땀보걸즈	00 나쁜형사	00 사의 찬미
[10]	00 특집 한국형 발사체 우리로 우주로 간다 55 UHD 슬터	10 불빨간 당신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1945 이키섬 부서진 기억이 데려가는 곳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12]	30 KBS 뉴스 40 KBS 결자 다큐멘터리(재)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9:00 미니특공대 X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07:30 띠띠뽀 띠띠뽀	13:40 엄마를 찾지마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맹 유치원1~2	14:30 미니특공대 x	〈컬러 아프리카 2부 강렬한 유혹 튀니지안 블루〉
08:3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파프리카	〈통영바다가 맛있는 이유 2부 그대, 우도를 아는가〉
09:00 뽀뽀뽀 뽀로로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	22:45 조식포함 아파트
09:40 메디컬 다큐 - 7요일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23:55 엄마를 찾지마(재)
10:30 한국기행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24:50 한국영화특선 (제보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치킨 데리야키 덮밥과 채소 절임〉	16:45 당동맹 유치원1~2	
	17:15 마사와 곰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4일(음 10월 27일 庚午)

<p><b>子</b> 36년생 변화를 주는 것이 낫다. 48년생 제대로 역량을 발휘해야 할 국면에 이르렀다. 60년생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고 확실히 대응하라. 72년생 지나친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오관을 야기할 수 있다. 84년생 이탈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51, 81</p>	<p><b>午</b> 42년생 술에 넣은 팔이라도 익혀야 먹는 법이 아니라. 54년생 희망의 보따리를 짊어준 이의 재물이 있겠다. 66년생 한 곳을 보지 말고 다각적으로 살펴보자. 78년생 역량 이 충분하니 굳이 남에게 구할 필요가 없다. 90년생 지나치다면 치명적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69, 45</p>
<p><b>丑</b> 37년생 미리 방책을 세워 두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49년생 가변적인 형국까지 예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1년생 상태는 양호하다. 73년생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는 국세이다. 85년생 거의 똑같은 국량이 반복 되겠다. 행운의 숫자 : 62, 62</p>	<p><b>未</b> 43년생 앞뒤를 잘 가려서 운용하자. 55년생 최근의 것이 가장 유력하고 용이하다. 67년생 한 번 선택한다면 돌이킬 수 없다. 79년생 불완전했던 원인 요소가 해소 될 수도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91년생 핵심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다루자. 행운의 숫자 : 00, 70</p>
<p><b>寅</b> 38년생 앞초만 주의한다면 무난하게 임할 수 있다. 50년생 쉽게 현혹 될 수도 있느니라. 62년생 가까운 이가 문제점의 해결을 호소하라. 74년생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정서를 참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86년생 처리만 잘 한다면 길사와 연결되리라. 행운의 숫자 : 64, 05</p>	<p><b>申</b> 44년생 확실한 의사 표시와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56년생 경제성까지 따져 보는 것이 상책이라 할 수 있다. 68년생 현실에 충실 하는 것이 좋다. 80년생 동일한 곳에 집중했을 때 실효적이다. 92년생 장담하고 나면 머지않아 후회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5, 72</p>
<p><b>卯</b> 39년생 예측 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51년생 지근지처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득이 있다. 63년생 밑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 나갈 것이다. 75년생 급격 절제하는 것이 지혜롭다. 87년생 결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약재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83, 78</p>	<p><b>酉</b> 45년생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뒤따라 없었다. 57년생 마음은 있으나 현실 여건이 따라주지 못 한다. 69년생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푸는 양상이다. 81년생 고민하지 말고 정해진 절차에 순응하라. 93년생 현실 상황에 부합하는 것이 도리이다. 행운의 숫자 : 84, 42</p>
<p><b>辰</b> 40년생 문제의 장본인과 우연히 맞닥뜨릴 수도 있다. 52년생 순리대로 풀어나간다면 결과가 좋으리라. 64년생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될 것이니 심기일전 하자. 76년생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큰 효과를 본다. 88년생 판국을 뒤 흔들 수도 있는 위력이다. 행운의 숫자 : 16, 90</p>	<p><b>戌</b> 34년생 예상치 못한 마당에서 당혹스럽겠다. 46년생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58년생 부분으로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70년생 이해관계를 떠나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82년생 무모함은 피해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자. 행운의 숫자 : 07, 64</p>
<p><b>巳</b> 41년생 맹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53년생 드러나지 않은 이면에 모순이 보인다. 65년생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며 몰려오고 있다. 77년생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나은 결과를 낳게 한다. 89년생 호기와 위험스러움은 공존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89, 37</p>	<p><b>亥</b> 35년생 시원찮았던 것이 한 문 하리라. 47년생 가까운 곳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59년생 세태가 어찌 되었든 시간에 절대로 주관을 잃지 말라. 71년생 편하게 생각해도 상관없으니 눈치 볼 필요 없다. 83년생 단순하게 여긴다면 복병을 만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57, 30</p>